

“익숙함에 가려진 아토피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세요”

사노피, “라이프 빌런, 아토피” 글로벌 캠페인 진행

- * 세계 아토피의 날 맞아 직장, 식당, 데이트, 수면, 약속, 운동 등 일상생활에서 아토피피부염이 삶에 미치는 영향 컨셉 이미지로 표현
- * 일상 속 상황을 통해 아토피 환자의 질환 부담을 간접체험, 환자들은 외면하고 있던 어려움을 직면하는 계기 될 수 있어
- * 실제 아토피 환자들 본인 증증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 보고... 개선된 아토피 치료환경 속 적극적 진단과 치료 독려

대한민국 서울, 2024년 9월 13일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한국법인*(이하 사노피)은 9월 14일 세계 아토피피부염의 날을 맞아 ‘라이프 빌런, 아토피’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아토피피부염이 우리 삶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알려 질환 경각심을 높이고 환자들의 진단과 치료를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노피는 9월 13일 오픈하는 ‘라이프빌런, 아토피’ 캠페인 웹페이지에서 직장, 식당, 데이트, 수면, 약속, 운동 등 일상생활에 대한 6가지 컨셉 이미지를 공개한다. 이를 통해 아토피피부염이 환자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 또한 환자들은 잊거나 외면하고 있었지만 본인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온 아토피피부염을 직면하고 치료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아토피피부염은 치료를 통해 증상을 적절하게 조절하면 수면장애, 불안, 우울 등 질환부담을 줄일 수 있다. 미국 피부과학회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실제 증상이 적절하게 조절되는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은 수면장애, 불안, 우울을 경험하는 비율이 12.6%, 14.4%, 12.9%이었다.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들은 이러한 부담을 겪는 비율이 각각 39.7%, 51.7%, 36.2%로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은 본인의 증증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피부과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Acta Dermato-Venerologica)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본인을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 평가한 비율은 53%였지만 환자중심습진평가(POEM)로 측정 시 75%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의 아토피피부염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4%였지만 아토피피부염 관리도구(ADCT)로 측정 시 67%였다.

배경은, 사노피 한국법인 대표

“최근 중증 질병코드 신설, 산정특례 적용 등으로 아토피피부염 치료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치료가 제한적이었던 과거에 치료를 포기하였거나 증상을 과소평가하는 환자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번 글로벌 캠페인을 통해 아토피피부염이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지가

* 사노피의 한국법인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배경은), 오펜라헬스케어코리아(대표 정경희) 중 본 보도자료는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에서 발행한 보도자료입니다.

높아지고 많은 환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아토피피부염에 맞설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라이프빌런, 아토피' 캠페인 웹페이지에서는 ▲아토피피부염의 이해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삶 ▲아토피피부염의 치료 ▲나의 아토피피부염 체크해보기 등의 배너를 통해 질환의 이해와 자가진단, 치료 및 관리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